

주요기사 해설

2007-08-27

● 현대차는 고군분투 중?

현대차 노조가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. 이에 따라 오는 30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찬반투표가 실시되고, 투표결과 파업이 가결되면 9월 3일경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. 최근 중국 등 외국시장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파업이 강행될 경우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영진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. 게다가 잦은 파업 및 임금인상 요구로 국내 소비자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도 위협받고 있다. 한편, 미국시장에서는 엔저현상 및 달러간 과열경쟁으로 일본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현대차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. 이 같은 국내외 악재는 당분간 현대차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● 삼성전자 '와이브로' 키운다

삼성전자가 와이브로를 신수종 사업으로 규정하고 3-5년 내 수익 창출을 목표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.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 스프린트넥스텔로부터 뉴욕 지역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구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워싱턴DC와 볼티모어, 필라델피아, 보스턴 등의 미 동부 주요도시에는 이미 네트워크 설계를 진행 중이다. 또한 국제표준 채택 가능성으로 와이브로의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향후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와이브로 관련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